

---

## KOREA-CANADA FORUM 2016

제14차 한국-캐나다 포럼 결과 보고서

---

# Exploring and Expanding Global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anada

---







# Overall Summary

---

종합 보고

제 14차 한국-캐나다 포럼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서울의 더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총 6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국과 캐나다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개척과 확장”이라는 주제아래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 국의 참가자들은 국내외 정치, 기술혁신, 경제 변화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미중관계와 그들의 관계가 동아시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미중 관계가 변혁기를 거치면서 많은 이들이 향후 미중관계가 보다 경쟁적이고 대립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계와 매스컴은 차기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을 제기하였다.

국제관계에서 역사란 패권국의 상대적 국력의 부침을 의미한다. 부상국은 국제체제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이에 반해 패권국은 부상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기피했다. 이는 두 세력 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으며, 두 세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상국인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미국에게 협조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중국은 여러 국제적인 영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일례로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을 들을 수 있다. 중국은 그들의 한계를 인지하여, 미국을 대체하는 국제적 패권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보다는 동아시아 내 패권국으로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맞서 “재균형 전략”을 취함으로써 특정 한 국가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내에 경쟁과 긴장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미국은 아시아 내에서 계속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반면, 중국을 역내체제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반응과 새로운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향후 대외정책의 향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암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세션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변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산업의 기본 체제와 사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에릭 브린올프슨과 앤드루 매카피가 공동 저술한 『기계와의 경쟁』에 따르면 기술은 점점 앞서 발전해 나가는 반면, 사회 내의 단체, 기관 및 기업들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이 시스템에서 혜택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와 경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의 규칙적인 이행 체제에서 새로운 컨셉트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이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각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 교육 역량, 적절한 사회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들이 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것이 한국과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불황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역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를 필두로 보호무역의 증가가 부진한 경제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생산량, 무역, 투자부분에서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역 감소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흥시장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3.3%였던 반면 선진국은 1.6%만을 기록했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 또한 존재한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세계화의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 캐나다의 연구기관인 CBC(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현재 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들은 디지털화는 아직 설치 단계라고 평하고 있다. 국제 기업지출은 정보통신기술 투자에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서비스의 구매로 이동하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화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세션의 토론은 극지 협력에 대해 다루었다. 기후변화와 만년설이 녹는 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북극권국가와 비북극권 국가간의 극지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북극이 인류번영의 마지막 전선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캐나다와 한국이 북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극은 기후변화와 해빙으로 인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해빙은 북극에서 외부로의 해로를 개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발표한 미국의 한 지질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13%에 달하는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가 북극에 있다고 한다.

한국은 비북극권 국가로서 북극에서 다양한 과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정부산하 연구소인 극지연구소(KOPRI)를 통해 북극권 국가들과의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이 북극의 과학연구에 이러한 노력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북극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의 존재감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여 한국이 비로소 북극권 국가로 거듭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캐나다권의 북극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캐나다에 직접투자, 북극 공급망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제품운송과 수출품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북극에서 그 존재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위기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고 갔다. 비록 한국과 캐나다의 정치상황은 상이하나, 양측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위기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반향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 체제는 지속되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상위 1%만이 경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들이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약한 대응정책은 취약한 교육체제와 교육부문의 미미한 투자로 인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에는 국민투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포퓰리즘이 선거에 만연한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조장하여 그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유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위기로는 인간 대 체제의 경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움직이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만연한 상황을 의미한다. 게다가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건전한 정경유착 또한 현 민주주의 체제의 와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현 상황에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션은 교육교류에서의 협력에 대해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직시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육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의미 있는 토론을 가졌다.

한국의 대학교는 혁신계의 중심에 있으며 캐나다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한국이 최초의 경제 및 사회발전 모델을 표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

선구자로서 미래세대에게 반복학습과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한국 입법자들의 주요 문제는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가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비록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수천 명의 캐나다인 ESL 선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간의 상호 이해는 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양국은 한-캐나다 교육 및 인턴십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와 공통된 비전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정리: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

The 14th meeting of the Canada Korea Forum (CKF) took place from October 27 to 29 at The PLAZA, Seoul, South Korea. Approximately 60 participants joined this forum, which was held under the topic of “Exploring and Expanding Global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anada.” The participants from each country held meaningful discussions on a variety of issues, ranging from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transitions.

In the first session, the participants examined US-China relations and the implications of recent tensions for East Asian security. With the ongoing transformative dynamics taking place in the bilateral relations, many have predicted that their future relations would become more competitive and conflictual. Against this backdrop, many scholars and media wondered whether the next US administration would take a harsher approach toward Beijing.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ghlights the cycle of rise and decline in the relative power of hegemons. Rising powers desire a more important role and a greater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as established powers tend to be reluctant to relinquish their influence. This creates tension and mismanagement of the relationship can lead to major wars. A similar tension is currently palpable between the rising power, China, and the established power, the U.S.

China tended to cooperate with the U.S. until around the 2008 economic crisis. However, since 2008, China has become assertive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realms such as in 2009 Copenhagen climate negotiation. China is becoming a regional hegemon, but does not yet aim to become a global hegemon, as it acknowledges its own limitations. In order to increase its influence, China would like the U.S. to play a lesser role in East Asia. However, since 2011, the U.S. has undertaken a “rebalance” to Asia, which aims to increase its role in the region. This has resulted in increasing competition and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region.

With regards to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the U.S. response is two-fold. The U.S. wishes to maintain strategic superiority and play a dominant role in Asia, it is also willing to accommodate China within this regional system. Despite such mixed response from the U.S. and the uncertain foreign policy direction of American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seems rather bleak.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Due to rapid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echnology, disruptions could have major impacts on both infrastructure and society.

In *Race Against the Machine*, co-authors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argue tha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not catching up with advanced technologies, which constitutes a great challenge. This highlights the need to adapt our society and economy to keep up with technology, with the view to benefitting the people.

---

If we are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systems of implementation routines to a new concept design, we must tackle other challenges. Each country should be equipped with a strong manufactural base, learning capability, appropriate social culture, and consistent innovation policies. The peoples, companies, and countrie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are those that are not afraid of moving forward through trial-and-error

The third session reviewed the shift in economic paradig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Canada.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truggling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which has resulted in a slowdown of trade. Compounding the sluggish growth has been the rise of protectionism, as evidenced by Trump election and Brexit.

Global growth in output, trade, and investment has slowed down due to cyclical and structural factors. Industri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slower growth and emerging markets, including the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slowdown in trade is more pronounced in advanced economies. While the average annual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was 3.3% from 2011 to 2016, advanced economies saw an average annual growth of only 1.6% for the same period.

However, there is a bright side as well. Digitalization, which is still in its early stage, can favor growth and bring about a new phase in globalization.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the digitalization of business. Global business spending is slowly shifting from ICT investment to buying cloud-based computer services. “Creative destruction” is happening but businesses have yet to reap full benefits from spending on digitalization.

The fourth session addressed arctic cooperation. As climate change and the melting of the Arctic sea ice have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it has become high time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Arctic and non-Arctic regions. As the Arctic is regarded as the last frontier for mankind’s prosperity, it is important for both Canada and Korea to search for a variety of realms where the two countries can cooperate and contribute to a sustainable future in the Arctic.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have emerged regarding the Arctic,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the melting of Arctic sea ice, which have resulted in the opening of new Arctic sea routes. On top of these challenges,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opening of the Arctic. According to the US Geological Survey released by Guggenheim Partners, 13% of the world’s untapped oil and gas resources are in the Arctic.

As a non-Arctic state, Korea has been undertaking various scientific activities to seek areas of cooperation with Arctic states. Research is undertaken mostly by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a leading agency for

---

national polar program and a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ion. Despite such commitment in Arctic scientific research, Korea still doesn't play as large a role as it would like to. Canada can help Korea become an Arctic nation essentially through contributing to its increased presence. The Canadian Arctic is a potential long-term source of strategically important natural resources for Korea, driving direct investment. Therefore, direct investment in Canadian operations, presence in the arctic supply chain, a critical role in the transportation of products and consuming Canadian northern exports would give Korea a meaningful 'presence' in the Arctic.

During the fifth session, participants discussed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and shared their ideas regarding possibl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lthough the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nd Canada are different, participants from each side shared ways forward to deal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repercussions of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Even after decades of democratic dispensation, people are still unhappy and dissatisfied with democratic countries.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dissatisfaction is the economic inequality.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p 1% is in control of the economy by owning numerous means of production. And democracies have done a poor job of addressing the issue. For many underprivileged people, there will be no possibility of retraining because of their age, relocation, and various other reasons. Weak countervailing policies are accompanied by poor education system and lack of investment in many parts of the world at all levels of education.

Korea also faces a number of challenges to its democracy. Though the country's institutions are stable,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and quality of democracy, many Koreans are not satisfied. There is the risk of public referendum, in which populism prevails in most elections. There is also the issue of internet governance, thus politicians manipulat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 (SNS) for their political legitimacy. Another challenge derives from men versus system issue, where visible and invisible hands sometimes prevail over the system working in democratic governance. In addition, there is unhealthy connection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 due to a dysfunctional check-and-balance system. These challenges are not unique to Korea and are prevalent many other democratic regimes. Furthermore, as each one of us is responsible for the outcome that we are facing at the moment, we should work together to confront the question of what we are actually going to do in order to resolve these challenges.

The last session dealt with the cooperation in educational exchanges. Global society has been directed to deal with perception gap between Koreans and Canadians regarding educational issues and reflected upon the ways to narrow that gap. Acknowledging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potential for collabor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between Canada and Korea, participants had meaningful discussions.

---

Universities in Korea are at the hub of innovation ecosystem and Canada is now moving in that direction. Education reform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 because it wants to depart from following older models to being the first mover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o be the first mover, Korea has to train its future generation through focusing 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rather than rote-learning or memorization. How to make a speedy and successful transformation in the education area is now a major challenge for Korean policy makers. For this transformation to occur, Korea needs strong partnerships, particularly with advanced countries like Canada.

Despite thousands of Korean students going to Canada to study and thousands of Canadian ESL teachers coming to Korea,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imited. The two countries have to build a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trust and a shared vision through programs like Korea-Canada education and internship exchange program.





# Session Summaries

---

세션별 요약

제 1 세션

## 미중관계와 동아시아안보에서의 영향력

지난 몇 년 동안 미중관계는 오바마 정권아래 변혁기를 거쳐 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예기치 못한 선거결과 이후, 새 정권하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시진핑의 중국적 강대국정치와 오바마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전략 (rebalancing strategy)의 전망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권하에 변화할 미중관계와 그 변화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많은 이들이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아시아 패러독스 (Asian Paradox)'로 정의하는데,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안보 체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역사란 패권국의 상대적 국력의 부침을 의미한다. 부상국은 국제체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원했으며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이에 반해 패권국은 부상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기피했다. 이는 두 세력 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으며, 두 세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부상국인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긴장상태가 존재한다.

중국은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미국에게 협조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중국은 여러 국제적인 영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일례로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을 들을 수 있다. 중국은 그들의 한계를 인지하여, 미국을 대체하는 국제적 패권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보다는 역내 패권국으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맞서 "재균형 전략"을 취함으로써 특정 한 국가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내에 경쟁과 긴장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고립주의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국제 정세와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 중견국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확립하여 국제정세의 안정과 미국과 중국사이의 전략적 타협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다는 것을 인지한 오바마 정부는 2010년 후반부부터 역내 질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게 된 주된 원인은 동아시아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는 동맹 강화, 군사 주둔 강화, 중국의 재부상에 따른 대응,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아시아 지역주의 증진 등이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일정부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2011년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전략’을 선언한 이후 동아시아 내에 강대국 정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강대국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군사, 경제, 정치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려 하기 보다는 서로를 위협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적 세력균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가중되어 북한 문제는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대북정책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생존을 위협하여 북한 정치체제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여 이러한 접근방식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미중사이의 완충국가로 보는 한,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한,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대통령의 결의는 민족주의의 정치적 활용과 더불어 중국의 대외정책에 추진력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과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역내에서 중국을 수용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미중관계의 미래는 다소 암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는 시진핑 대통령의 취임 후 눈에 띄게 나빠졌다.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군사교류 등의 분야에서는 분명 협력을 도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미중관계에서 있어서는 대립하는 영역, 특히 안보분야에서의 대립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한 영토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비전과 중국의 비전 사이에 실질적인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두며 친중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더욱 가시화되었다.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는 중국을 보다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관계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동남아 국가들 또한 중국과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세력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파워게임은 제로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외교관계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제로섬과 같은 사고방식은 소프트 파워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주요 강대국들은 다극적 기구의 가치를 높이 사며, 그들은 경우에 따라 그들의 힘을 내려놓고자 한다. 현재 중견국들 또한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만큼, 이제는 중견국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두 강대국의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새로운 정부를 시작함에 따라 미국은 대내외 정책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 2 세션      기술혁신과 디지털 변혁

두 번째 세션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변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산업의 기본 체제와 사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산업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사회와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온 대표적 산업이며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모바일 데이터량은 매년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그 방대한 크기로 인해 엑사바이트로 계산이 될 정도다. 엄청난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이 산업은 2020년에 이르러 55억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물, 전기, 식량 등 삶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접근성을 가진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구축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또한 또다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지금 이 시기를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하는 로봇공학·생명공학·3D 등의 가상 물리 시스템을 지칭하는 제 2차 기계시대 혹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빅데이터 수집·인공지능·클라우드 데이터 및 저장 등이 모여 형성하는 집합적 기술의 힘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표출되고 있다. 에릭 브린을 프슨과 앤드루 매카피가 공동 저술한 『기계와의 경쟁』에 따르면 기술은 점점 앞서 발전해 나가는 반면, 사회 내의 단체, 기관 및 기업들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서 혜택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와 경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신형 여부를 떠나서, 새로운 콘셉트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즉 혁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관점, 혁신적 네트워크 그리고 시행착오의 요소들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전에는 규칙적인 이행 체제가 있었다면 현재는 새로운 콘셉트 디자인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는 기술적 역량과 교육·재정·미시경제·연구개발 및 사회정치를 가진 사회적 기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차원의 혁신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를 위해서는 한 국가 내의 모든 주체들이 일관적인 시스템 아래 한 번에 움직여야 한다.

과거의 규칙적인 이행 체제에서 새로운 콘셉트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이에 수반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각국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 교육 역량, 적절한 사회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들이 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부터 비롯된 산업 중에 하나로 한국과 중국의 O2O (Online to Offline) 산업을 들 수 있다. 한중 O2O 산업은 한국과 캐나다간의 유사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이끌어낼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 산업, 즉 현실에서

는 자원, 물질 및 그 소유권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온라인 산업에서는 정보공유 및 관계가 중요한 요소이다. O2O 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산업으로, 주로 양자간에 이루어진다. 전세계 100여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각각 에어비엔비, 우버, 샤오비, 디디콰이디 등이 가장 대표적인 O2O 서비스 기업들이다.

캐나다, 중국 그리고 한국의 O2O 산업들을 비교해 볼 때, 캐나다의 O2O 산업은 국제 기준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독자적인 O2O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 되어있다. 중국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개방하는 대신, 해외 O2O 서비스가 자국의 유사한 O2O 서비스와 경쟁하게 하며 별다른 피해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 O2O 서비스들이 국내법 적용으로 인해 규제를 받거나 혹은 금지 되었다. 예를 들어 우버는 택시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의해 금지되었고, 그 대안으로 택시노동조합과 협상을 끝낸 카카오 택시가 부상했지만 이는 공유 시스템이 아닌 콜택시의 개념으로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했다. 에어비엔비 또한 한국에 법인을 세울 수 없었는데 이는 국내법상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특정 허가증이 필요하며 각종 세금 납세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 서비스로는 야놀자가 있는데 이는 예약 가능한 모텔·호텔을 알려줄 뿐, 이 또한 공유 시스템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해외 O2O 서비스를 자국에 도입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O2O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음식배달 서비스이다. 각 국가마다 O2O산업에 대한 접근법은 각기 상이하며 이는 도입되는 시간의 차이로 나타난다.

산업적 역량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 중 모바일 혁신을 유력이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분야를 장악할 기술이며 기술 접목과 경제 복지와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놓여졌다. 이 기술자체가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이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산업이 일으키는 혼란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일자리 및 부의 창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상태다.

차세대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이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건, 교육, 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생활방식과 세계의 디지털 기기들의 트렌드를 바꾸어 놓았다. 곧 출시될 5G 네트워크 또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모든 물건은 센서를 탑재할 것이며, 기기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결하여 소통할 것이다. 이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극심한 압박을 줄 것이다. 그로 인해 사업 전략을 바꾸거나 새로운 길의 개척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과 메모리 저장에 무료로 제공되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 인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예를 들어 제너럴 일렉트릭스 (이하: GE)사는 전통 부서와 디지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GE사는 기존제품 판매 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한다. 소규모 기업들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리더십이 없다면, 한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차후 차세대 네트워크의 시장에 설 자리가 매우 좁을지도 모른다.

데이터는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는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창출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창출된 데이터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통찰력과 분석결과를 제공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한 지사가 특정 데이터를 창출해 낸다면, 이 데이터는 해당기업의 본사로 바로 전송되어 바로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시스템은 결국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일례로 싱가폴은 주거환경개선 및 무인택시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는데 효과적인 데이터 창출 및 소비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불황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역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과 브렉시트를 필두로 보호무역의 증가가 부진한 경제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생산량, 무역, 투자부분에서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인 브릭스(BRICS: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 감소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흥시장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3.3%였던 반면 선진국은 1.6%만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BRICS 국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부실한 경제 관리로 인하여 두 번째 경제 불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대통령을 탄핵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노동력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투자 성장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민간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ASEAN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강자로 뜨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기존의 경제모델을 변경하는 것과 시장 개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불황을 겪고있는 러시아 또한 석유 감축과 관련한 OPEC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지난 수십년간 신흥시장이 더 이상 전처럼 밝은 전망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감소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흥시장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3.3%였던 반면 선진국은 1.6%만을 기록했다. EU와 일본이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해외직접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 또한 존재한다. 기업의 디지털화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세계화의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 캐나다의 연구기관인 CBC(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현재 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들은 디지털화는 아직 설치 단계라고 평하고 있다. 국제 기업지출은 정보통신기술 투자에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서비스의 구매로 이동하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화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지출은 정보통신기술에서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와 상품 간의 결합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모든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과 생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

---

한국과 캐나다는 생산 및 서비스를 분야를 제외한 작은 분야에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한국의 주 관심사는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부가적으로 농업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상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한국의 식품시장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국가는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 협력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기업들은 그들과 비즈니스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반면 캐나다의 산업 생태계는 거대한 미국의 산업 생태계에 밀접하게 융합 되어있으며, 제조와 서비스측면에서 미국기업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관계에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업사업과 천연자원 관련 사업 같은 예외도 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독립적인 사업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다.

4차 산업 혁명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협력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모든 수준의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많은 전자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초청하여 협력을 도모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폐쇄적 산업생태계의 문을 열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의 산업 생태계는 다시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산업은 기술적 요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양자 간 사업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은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외국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측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동맹을 장려해야 한다.

무역내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는 현재 긴 회복주기에 있다. 세계 무역은 여전히 세 경제강국인,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에 의해 움직인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회복할 것이며,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무역이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무역 체제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절대 무역량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WTO는 현재 신뢰를 잃고 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이유가 있는데, 새로 추가된 회원국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중국을 비 시장 경제로 취급할지 시장 경제로 취급할 지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만약 WTO가 중국에게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한다면 캐나다와 미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중국을 시장 경제로 보고 있다. 그 이후로 반덤핑 시스템은 중국 수입에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

TPP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TPP가 비준되면 TISA, 일본-유럽 FTA 또한 대두될 것이다. TPP 회원국들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TPP가 언제 비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TPP, FTA 및 기타 RTA는 현재 무역 상황을 발전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추진력을 잃은 듯 하다. 전반적인 상황은 다소 암담하다.

그러나 다행히 FTA 협상, 특히 디지털 교역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TPP는 디지털 무역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탁월한 발판이 되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없는 취급,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누락되었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미래 서비스 산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TPP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제외했지만, TISA 협상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2016년 말까지 이 TISA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그들이 동의한 사안들은 디지털 핀테크 분야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가장 마음이 잘 맞는 두 나라이다. 한국 정부가 이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한, 한국과 캐나다는 앞으로 국제 규범 제정을 함께 주도해나 갈수 있을 것이다.

## 제 4 세션      극지 협력

기후변화와 만년설이 녹는 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간의 극지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따라서 캐나다와 한국 모두 북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할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을 도모할 공통된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북극에는 다양한 도전과제와 기회가 공존한다. 2012년 9월 북극의 하절기 해빙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북극으로의 통로가 개방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발표한 미국의 한 지질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의 13%에 달하는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가 북극에 있다. 또한 조사결과는 북극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수요가 15년 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북극의 새로운 항로로 인해 물자의 운송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북극이 지정학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북극이 신형패권게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지난 20년 동안 북극은 ‘북극 예외론’이라는 말이 언급될 정도로 매우 평화로웠다. 대륙붕 확장과 관련된 영토분쟁 또한 머지않아 해양법협약 (UNCLOS)에 의거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북극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또한 다자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987년 구소련의 대통령인 미카엘 고르바초프는 북극이 “평화지대”가 될 것을 촉구했다. 과거 북극에는 기구설립을 위한 지원이 매우 미미했다. 1996년 북극이사회의 설립 이래 2015년까지 북극에 기여하는 여러 국제적·지역적 기구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몇몇의 비북극권 국가들도 다자기구를 통해 북극국가들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북극권 주체들의 참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북극관찰 및 평가프로그램 (AMAP)은 북극이사회 소속 6개의 실무진 중 하나인데, 그들은 약 22개국이 소속 되어있는 273의 기관에서 896명의 저자가 작성한 내용을 취합하여 총 19개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처럼 지식창출에서는 활발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비북극권 국가들이 정책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1) 정책상에서 비북극권 국가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지정 주어야 한다. 2) 비북극권 국가들 또한 정책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집중하고 싶은지 설정해야 한다. 3) 그들이 접근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운송, 해양문제, 혹은 자원개발 등 각각의 정책분야는 관련 기관과 주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비북극권 국가로서 북극에서 다양한 과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극지연구소 (KOPRI)를 통해 북극권 국가들과의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극지연구소는 노르웨이에 위치한 스발바드를 비롯한 범북극 탐사지역에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

다. 극지연구소는 매년 200여명의 사람들을 30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북극에 파견한다. 한국의 북극연구소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에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2013년 한국은 북극이사회로부터 옵저버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한국이 북극연구를 시행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북극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3)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북극 내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 등이 있다.

한국의 외양항행을 돌아보면, 한국의 지리적 관심은 북극의 태평양영역과 아북극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과학자들은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제적 차원의 공동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북극에서 한국 연구원들은 기후 기체 역학 연구와 북극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각각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로 흥미로운 조합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전국적인 연구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화 하는 방면에서는 취약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연구능력은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양 국가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는 중견국가일 수 있으나, 그들은 양질의 연구를 통해 강대국을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그들은 보다 치밀한 기획과 헌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북극과학연구단체는 북극연구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였으나, 북극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다소 부족하다. 한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북극에 위치하진 않지만, 그 존재감을 통해 북극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한국에게 그들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조선업과 중공업에서의 전문성과 혁신문화는 북극 광산산업에 충분히 응용 가능할 것이다. 캐나다권의 북극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에 직접투자, 북극 공급 망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제품운송과 수출품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북극에서 그 존재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산물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같은 범세계적인 위기는 각 사례마다 상이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4가지 위기에 직면하였다. 첫째로는 국민투표의 위험성이다. 대부분의 유권자의 선택은 특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며, 이는 민중선동 혹은 포퓰리즘으로 귀결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선거는 현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 대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노와 우려는 유권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오히려 와해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위기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은 소셜 네트워크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량의 증가와 빅데이터의 영향력은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좋은 영향과 악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분명 중요한 자산이나, 포퓰리즘 정치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정치인들 또한 이를 남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인간 대 체제의 경쟁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체제를 장악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을 둘러싼 추문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네 번째 위기로는 불건전한 정경유착이다.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직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부정부패와 불건전한 정경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십년간 민주주의 통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족한 상황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족이 팽배한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상위 1%만이 경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좌절감은 기술적 변화와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 경제적 혼란은 무역보다는 주로 기술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약한 대응정책과 엘리트계층의 인식의 결여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었다.

캐나다의 경영관리 컨설턴트인 도미니크 바튼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초래한 실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

국민들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브렉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헝가리에서는 2000명 이하의 난민을 수용하자는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난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헝가리 고유의 문화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시행되었다. 헝가리의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였다. 이처럼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치계급에 대한 부인은 교육의 실패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 전문성, 데이터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까지 초래하였다.

2015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제도화 측면에서 총 167개의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수립하였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비록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적 측면으로 봤을 때 현정부는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국의 정치는 대중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보상의 정치가 더욱 만연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로운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그들의 지지자들을 보상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선거 이후 대중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을 더욱 가중시킨다.

한국은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개헌을 하는 목적은 효과적인 정치지도자들을 확립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 긴장상태로 인해 한국은 계속해서 높은 국방비를 유지해야하며, 이는 2014년에 전체 GDP의 2.4%를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공공복지지출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동시에 높은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내 긴장상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오리아에서는 어떨까?’ 는 원래 미국에서 널리 회자가 되던 말이였다. 피오리아는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중미권에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간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하던 도시였다. 새로운 정책 혹은 신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피오리아에서 이를 시험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미국의 중산층과 피오리아를 잊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피오리아로 회귀하는 정치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랜 시간 워싱턴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피오리아의 사람들은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에게 다가가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피오리아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피오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실패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 제 6 세션

# 교육교류에서의 협력

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대학교는 혁신계의 중심에 있으며 캐나다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한국이 최초의 경제 및 사회발전 모델을 표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구자로서 미래세대에게 반복학습과 단순 암기 보다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입법자들의 주요 문제는 이와 같은 교육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여러 중요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한국의 현 정권은 “자유학기제(free semester)”라는 제도를 시작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시험을 전혀 치지 않고 그들의 꿈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또한 한국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시험 점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논술, 면접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도록 변화하였다. 한국교육의 또다른 변화는 직업학교와 전문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졸업 후 100 %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고등교육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 학급 계획”을 시행하여 국내 대학으로 외국인 교수진을 초빙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가 많다.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의 교육 체계를 상대국에게 개방해야 하며, 캐나다의 교육 제도는 한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불평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캐나다의 대학교는 일반 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중퇴한 성인의 입학 또한 허가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위한 고등기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고등 교육 이후 학생들에게 세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견습기간 이수, 전문대학 진학, 그리고 일반대학 진학이 있다. 캐나다는 졸업증서와 학위 프로그램 등의 취득을 장려하는데,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 자문위원회(program advisory committee)가 있다.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응용 연구를 통한 혁신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대학과 교육기관은 기업들이 기술 및 공정, 제품, 서비스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응용 연구는 졸업생들이 고용주가 추구하는 연구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캐나다의 창업 개발은 모든 학생들에게 창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산업 및 민간 부문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비록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수천 명의 캐나다인 ESL 선생님이 한국으로 오고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간의 상호 이해는 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과 캐나다는 신뢰와 공통된 가치와 비전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제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만 한다. 양국은 한-캐나다 교육 및 인턴십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국가의 고용주들을 끌어들이야 한다. 매년 한-캐나다 공동위원회가 한두가지의 주요분야를 선정한 후, 매년 이틀간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들을 규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관들은 상대국의 파트너국가를 선정하고, 펀딩을 위한 공동파트너십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위해 해당 국가로 이동시에 지원금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인턴십 이전에 한달간의 오리엔테이션이나 단기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유사한 작은 규모의 계획은 몇 차례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교류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는 네 단계가 있다. 새로운 무언가 마주치고, 마음을 열고, 이해와 용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려면, 우리는 대학교내의 캐나다학과 한국학과정을 가르치려는 노력을 기해야 하며, 양 국가에 대한 서적을 출판하거나, 학생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더욱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많은 캐나다인 학생 또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 한국에는 캐나다식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캐나다 교육 센터와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캐나다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Canada World Youth Program, CWY)도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청소년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Session 1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 for East Asian Security**

---

Over the past few years, the US-China relations have undergone transformation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Since the surprise election of Donald Trump, many questions have arisen as to whether the next U.S. administration will take a harsher approach toward Beijing. Throughout this session, the participants examined China's new style of great power politics under Xi Jinping and the outlook of Obama's 'rebalancing' strategy toward East Asia with the onset of the next U.S.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The 'Asian Paradox' describes relations between East Asian stat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but competitive and unstable relations in the political sphere. This is largely due to the absence of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s to facilitate cooperati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ighlights the cycle of rise and decline in the relative power of hegemonies. Rising powers desire a more important role and a greater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as established powers tend to be reluctant to relinquish their influence. This creates tension and mismanagement of the relationship can lead to major wars. A similar tension is currently palpable between the rising power, China, and the established power, the U.S.

China tended to cooperate with the U.S. until around the 2008 economic crisis. However, since 2008, China has become assertive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realms as revealed from 2009 Copenhagen climate negotiation. China is becoming a regional hegemon, but does not yet aim to become a global hegemon, as it acknowledges its own limitations. In order to increase its influence, China would like the U.S. to play a lesser role in East Asia. However, since 2011, the U.S. has undertaken a "rebalance" to Asia, which aims to increase its role in the region. This has resulted in increasing competition and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region.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destabilize global and East Asian politics if it pursues an isolationist policy. Such policy would provide more room for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in the region. Since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anada, want a stable and peaceful Asia-Pacific, they should try to establish a partnership among middle powers to stabiliz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by encouraging a strategic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China.

Having realized the United States was losing ground in East Asia, the Obama administration began to turn its eyes to the region in the second half of 2010. In this light, a major driving force for America's rebalancing toward Asia was the growing Chinese influence in East Asia. The core elements of the US rebalancing strategy included deepening alliances, increasing its military presence, responding to China's resurgence,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ASEAN, and encouraging regionalism. So far, America's rebalance to Asia has shown a moderate success.

---

Since the United States declared its 'Rebalance to Asia' in 2011, we have witnessed the re-emergence of great power politics throughout the region. Great powers - the US, China, Japan, Russia, and India - are trying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by threatening rather than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means. US-led hegemonic power appears to be challenged. This results in an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rivalry, which is making it ha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ROK-U.S. policy on North Korea is focused on regime transformation and inducing change through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regime. However, China does not support this kind of approach for fear of possibl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long as China sees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between itself and the U.S. and perceives the North Korean problem within the contex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western Pacific, it will not be pursuing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political use of nationalism combined with the determination from President Xi,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forward dynamic in line with state's foreign policy. With regards to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the U.S. response has been two-fold. The U.S. wants to maintain strategic superiority and continue to play a dominant role in Asia, but is also willing to accommodate China's rise within the regio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seems rather bleak. There has been a noticeable worsening in their relations since President Xi came to power. While there has been a fair amou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many spheres, areas of contention are more important and more central to the relationship,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ecurity issues.

The ongoing territorial disputes over South China Sea are illustrative of the rising tensions. The South China Sea will continue to define the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Filipino President Duterte's remarks on his country's separation from the U.S. and rapprochement with China highlight the Sino-American geopolitical competition. China's approach to South China Sea has worked so far, which will only embolden it in the near future. This will put Beijing even mo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the US and its allies who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Both the US and China seem to look at power as a zero-sum game. In fact, many aspects of power are not zero-sum. There are equally important factors in between relations, and such zero-sum perspective neglects the aspects of soft power and the importance of ideology. Since major powers valu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ey are willing to relinquish some of their power in certain instances. Given that multilateral settings now give an equal voice to middle powers, it is time for them to help change the strategic thinking of the two countries. After Trump takes office in January 2017, there may be dramatic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

## Session 2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 Due to rapid changes and developments in technology, disruptions could have major impacts on both infrastructure and society.

Mobile technology is a vivid example as it has brought and will continue to bring rapid change to both sectors, with mobile data growing 50% annually and now calculated in Exabyte, illustrating its enormous growth. It is expected that by 2020, 5.5 billion people will possess smartphones, far more than those who have access to basic necessities such as water, electricity, food and so on. The Internet, which is dominated by platform companies such as Amazon or Google is another example.

With the rapid speed of change, we are now talking about the onset of the 2nd Machine age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also refers to cyber physical systems such as robotics, bio-tech, and 3D, all based on digital platform. Big data collec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data and storage are also of concern that they will come together and create disruption. According to *Race Against the Machine*, co-authored by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re not keeping up with rapid technological changes, which constitutes a great challenge. This brings the need to reinvent major aspects of society and economy to keep up with technology in order to benefit the people.

In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whether the product or service is new or not, it needs a new concept design. In other words, a revolutionary proces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pects of unique and challenging visions, innovation network and trial-and-error are needed in order to explore the unknown. Previously there have been systems of implementation routines, and now there are new concept design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transition between the two. An individual country could be divided into two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an implementation routine or a new concept design. Each country also needs a national renovation system with technological capability, social institution in education, finance, micro-economy system, R&D and socio-politics. But in order to make such transition, all actors in a single country should change simultaneously as a coherent system.

If we are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systems of implementation routines to a new concept design, we must tackle other challenges. Each country should be equipped with a strong manufactural base, learning capability, appropriate social culture, and consistent innovation policies. The peoples, companies, and countries who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are those that are not afraid of moving forward through trial-and-error

As a part of numerous developments stemming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2O (“online to offline”) business between Korea and China could provide some guidelines for such similar business opportunities between

---

Korea and Canada. While offline businesses are all about resource, material, and possession, online businesses are about information sharing and relationship. O2O businesses are often in between the two. Out of the 100 unicorn businesses worldwid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the largest quantity with Airbnb, Uber, Xiaomi and DiDi Kuaidi as O2O service representatives.

By comparing businesses in Canada, China, and Korea, it is evident that Canada's O2O services are close to global standards, while China has its own version of O2O service platforms.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set any regulations but opens the market, making foreign O2O services compete with its domestic brands; if there is no harm done to its industry, the government will not intervene.

In the case of Korea, several regulations and bans have affected the import of foreign O2O services. For example, Uber was banned due to rigid opposition from the Taxi Driver Union.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Kakao Taxi, which negotiated with the union and was able to survive as it was not a sharing system but a call-taxi. Airbnb was not able to integrate the Korean market, due to rental regulations and tax issues. There is an alternative service called 'Yanolja' but it only provides a limited quantity of available motels and hotels. While there have been failures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O2O businesses, O2O food delivery services are very promising in both China and Korea. Every country has a different approach to O2O, which has an impact of the speed of diffusion.

In regards to building industrial capacity, mobile renovation is one factor to keep an eye on. It is the fastest technology to dominate the planet and it is directly related to technology application and economic well-being. No participation is necessary as the technology itself is irresistible for people not to interact. There are leadership issues to cover on how to manage this phenomenon and how to take advantage of it. There have been numerous talks about disruption and distraction but not much about job and wealth creation. The impact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 is not yet well known.

One of the biggest examples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 is iPhone, which had a major impact on most sector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banking, thus changing our lifestyles and the trend of digital devices. With the upcoming 5G network, a whole new service platform will be created. There will be sensors in all objects, and devices will communicate between themselv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is new technology will bring big opportunities but also severe pressures. The need to change business strategies and new pathways to respond is necessary. As computer technology and memory storage is free, this makes it easier for small teams to create great value.

For example, General Electrics is operating both digital and traditional divisions. When they sell their traditional products, they are able to collect data and information by using their digital devices, which helps in enhancing

---

their technology.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be responsive and provide leadership to help small companies to follow the fast changing market. Without this leadership, there might be little space for countries like Korea and Canada to stand in the rapid market.

Data is growing two-fold every 18 months, because we are generating more than we are consuming data. The data generated by new technologies will provide insights and analyses that will help in making decisions. For example, a company branch will generate data that will allow its headquarter to analyze the received information and act accordingly. This system benefits the society as it is publicly available. An example of Singapore's initiative on housing improvement and on a driverless taxi service shows the efficient use of data generation and consumption.

---

## Session 3      **Economic Paradigm Shift**

---

The global economy has been in recession for the past eight years, and we have witnessed a slowdown of trade in the last three years. Compounding those issues is the rise of protectionism, as evidenced by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nd Brexit.

Global growth in output, trade, and investment has slowed down due to cyclical and structural factors. Industri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slower growth and emerging markets, including the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slowdown in trade is more pronounced in advanced economies. While the average annual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was 3.3% from 2011 to 2016, advanced economies saw an average annual growth of only 1.6% for the same period.

Growth is slowing down in most of the BRICS countries. In the case of Brazil, bad economic management has led to another recession. In August 2016, President Dilma Rousseff was impeached, which has made decision-making on economic policy more difficult. China's economic growth is slowing as well. The One Child Policy is now affecting the growth of labor force. In addition, private investment growth has stopped, which worries the authorities. If private activity stops growing, China may experience difficulties sustaining its growth rate. India, which is now growing at a faster pace than China, is becoming a new star, along with countries like Indonesia and some other ASEAN countries. But India has a hard time implementing economic reforms and opening its market. Russia, whose economy is also in recession, has suggested that it wanted to take part in the OPEC discussions about reducing oil supply. All these cases clearly show that the outlook of emerging markets is not as bright as it was in past decades.

The trade slowdown is more pronounced in advanced economies. While average annual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was 3.3% from 2011 to 2016, advanced economies recorded an average annual growth of 1.6% from 2011 to 2016. The EU and Japan are currently a drag on global trade performance and the global FDI trend is flat.

However, there is bright side as well. Digitalization of business, which is still at an early stage, may kick-start globalization again.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is undertaking research on the digitalization of business, but it is still at the "installation" phase of the digital economy. Global business spending is slowly shifting from ICT investment to buying cloud-based computer services. "Creative destruction" is happening but businesses have yet to reap full benefits from spending on digitalization. Next phase will be full deployment of digital platforms.

We are witnessing a shift in business expenditure from investing on ICT to buying cloud-based computer services, which enables access to more real-time data on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business. Consequently, Internet-based and digitized services are available anywhere, thus promoting deeper integration of services into goods. All firms can become data-rich, offering a new service to customers and suppliers.

---

Korea and Canada have been trying to take advantage of each other's advantages in minor areas other tha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Korea's main interest is focused on Canad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so Korea tries to either directly buying out utilization permits or participating in joint projects, and in some cases, in agro-business. On the Canadian side, it is interested in Korea's potential food market, trying to export products directly or launching joint projects. However, there is little cooperation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areas.

On the Korean side, large Korean companies form a closed and autonomous industrial ecosystem centered on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ere is no possibility for other companies, either domestic or foreign, to establish business alliances with them. On the Canadian side however, the country's industrial ecosystem is closely integrated into the greater North American industrial ecosystem. Canada's industrial ecosystem is too dependent on direct business relations with American companies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s, but there are notable exceptions: agro-business and natural resources-related businesses. Canada does not need to pursue independent alliances with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force everyone to pursue collaboration at all levels.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between companies at every level. Korea made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to invite many e-companies and startups to try to collaborat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open gateways to its closed industrial ecosystem. Faced with increasing servitization of the economy, both countries' industrial ecosystems seem to be inefficient again. Korea's industry is too much focused on technological elements. In order to make bilateral business cooperation more effective, Korea has to open the existing industrial ecosystem to foreign companies. On the Canadian side, companies should develop a broader set of business alliances outside of the US.

There will be no paradigm shift in trade. The global economy is now on a long recovery cycle. Global trade is still driven by the three main economies of the world, China, the EU, and the U.S. Within the next few years, the global economy will grow and recover, and there will be increasing trade in the technology and service sectors. The global society is currently facing unprecedented situation in the world trade system, with the absolute trade volume declining.

Canada made great contributions to establis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owever, the WTO is now losing its credibility, in part due to the accession of communist or former communist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Vietnam, and Cambodia. One of the main issues is figuring out whether to treat China as a non-market economy or give it a market economy status. If the WTO gives China a market economy status, Canada and the U.S. will

---

encounter the same problem as Korea has now. Korea has regarded China as a market economy since 2006. Since then, antidumping system doesn't work against Chinese importation.

TPP is important and is a starting point to resolve all the problems. If TPP gets ratified, it will bring out TISA, Japan Europe FTA.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PP members, it is uncertain when it will be practically ratified. TPP, FTA, and any other RTAs seem to be losing the actual momentum to push forward or resolve current trading situation. The whole situation seems a bit pessimistic.

There is an interesting development in FTA negotiations especially regarding digital trade. Particularly, the TPP came up with a remarkable stepping board for setting out global rule of digital trade. This include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for digital products, online consumer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 forth. However, there is no digitalization taking place in financial services. The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may have hug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ervice industry sector. So far, the TPP excluded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but TISA negotiation is addressing this issue. And now, the U.S. is pushing this TISA negotiation to be concluded by the end of 2016. If this is completed, they may agree on important principles, which can have hug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In the digital trade area, Canada and Korea are two most like-minded countries. Given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push forward in this sector, Korea and Canada can work together to lead global rule making.

---

## Session 4      **Arctic Cooperation**

---

With climate change and the melting of permanent ice caps catch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it has become imperative time to discuss Arctic cooperation between the Arctic and non-Arctic reg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both Canada and Korea to search for a variety of issues where the two countries can cooperate and contribute to a sustainable future in the Arctic.

Sever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ave emerged in the Arctic. In September 2012, the Arctic summer sea ice was the lowest on record.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opening of the Arctic. According to a US Geological Survey released by Guggenheim Partners, 13% of the world's untapped oil and gas resources are in the Arctic. The survey also indicated that the infrastructure demand in the Arctic is estimated to reach one trillion US dollars in the next 15 years. New Arctic sea routes will provide pathways for goods to be transported.

As the Arctic triggers much geopolitical attention, some have questioned whether the Arctic would become the locus of a New Great Game, although it seems a remote possibility.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the Arctic has remained peaceful, leading some to talk about 'Arctic Exceptionalism'. A few territorial dispute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re expected to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UNCLOS (the Law of Sea). The Arctic Council, which was created in 1996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Arctic states, can also help to resolve multilateral disputes.

In 1987, the former Soviet president Mikhail Gorbachev called for the Arctic to become a "zone of peace". Previously, there had been little support for any kind of institution in the Arctic. Along with the creation of the Arctic Council in 1996 and until 2015, there has been a growth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stitutions devoted to the Arctic. Still, there is a need for more efforts to bring different stakeholders to the table.

Several non-Arctic states are now interested in engaging with Arctic states through multilateral bodies. The involvement of non-Arctic actors is nothing new to the Arctic. The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which is one of the six Working Groups of the Arctic Council, has produced 19 reports written by 896 authors from 273 different organizations, and 22 different countries.

Despite active participation at the knowledge generation level, there are few opportunities for non-Arctic actors to influence policies. In order for them to have influence on policies, there are three things they need to focus on: 1- they need to identify the specific policy areas where they can reasonably expect to play a role. 2- they should also identify which phase of the policy process they want to focus on, whether that be knowledge generation or policy influence. 3- It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the networks that they are trying to connect to and influence. Each policy area, for instance tourism, shipping, marine issues or resource development, has its own organizations and core players.

---

Being a non-Arctic state, Korea has been undertaking a number of scientific activities in the Arctic and has sought areas of cooperation with Arctic states, mostly through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KOPRI), a lead agency for national polar program. KOPRI has an ice-breaking research vessel in Svalbard, Norway and a number of Pan-Arctic observation sites. Annually, it sends about 200 people to the Arctic at a cost of 30 million dollars. Korea's Arctic station was built in 2002 and in the same year they beca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Korea was granted observer status by the Arctic Council in 2013.

There are a variety of reasons for Korea to conduct Arctic research: 1) a desire to join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nergy and resources 2) the fact that Korea is subjected to the influence of the Arctic due to the lo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a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Arctic.

In terms of Korea's ocean going efforts, Korea's geographical focus lies in the Pacific Sector of Arctic and the Sub-Arctic. Moreover, Korean scientists are undertaking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are willing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Arctic, Korean researchers have been conducting climate gas dynamics studies and have been studying the evolution of the Arctic and its history.

Canada and Korea is an interesting match, as an Arctic and a non-Arctic state. While Canada has a very strong nation-wide research community, it suffers from poor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Korea's research capacities are too concentrated in one agency. The two countries can compensate for each other's disadvantages. Korea and Canada may be middle powers in science, but they hold the potential to become a great power through quality research. For this to happen, however, they need more thorough planning and commitment.

Korea's Arctic scientific research community has demonstrated its commitment, but this has not proven enough to increase Korea's influence in the Arctic. Korea can become an Arctic nation essentially through presence, despite not being geographically in the region. Canada can help provide Korea a platform to demonstrate commitment in the Arctic. Korea's expertise in shipping and heavy manufacturing and its innovation culture are highly applicable to the Arctic mining business and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current construction and operating models. The Canadian Arctic is a potential long-term source of strategically important natural resources for Korea. Therefore, through direct investment in Canadian operations, a presence in the arctic supply chain, a critical role in the transportation of products and consuming northern exports, Korea could establish a meaningful 'presence' in the Arctic.

---

Session 5

##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

Over the past decades, many people across the world have expressed discontent with some of the outcomes of democracy. In 2016, democratic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ave faced various challenges. These global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vary in each case, but they all similarly threaten democratic foundations.

There are four major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in Korea. The first challenge is the risk of public referendums. In most cases, voters' choices are not informed by sufficient knowledge of specific issues, which opens the door to demagoguery and populism. In most elections around the world, voters are driven by the fear of seeing their situation worsen. As we have seen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anger and anxiety become major motives for voters' decisions. Therefore, referendum often subverts democracy, rather than serves democracy.

The second challenge is related to internet governance. In Korea, which is the most connected society social networks are often perceived as a very effective tool to increase participation. But the influence of mobile growth and big data can be both good and bad for democratic governance. Big data is a truly precious asset, but could also become a source of populist politics and politicians can be tempted to abuse them.

The third challenge can be characterized as "men versus system", where visible and invisible hands sometimes prevail over the system. The scandal surrounding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an example of this. The fourth challenge is the unhealthy connection between business and governance. Even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stablishment of checks and balances, the presidency in Korea holds tremendous power. The legislative body is not working properly, thus losing credibility in the eyes of the public. The dysfunction of the checks and balances system is opening the door to corruption and unhealthy connec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es.

Even after decades of democratic dispensation, people are still unhappy and dissatisfied with democracy. One of the reasons for the widespread dissatisfaction is the growing economic inequality.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top 1% is in control of the economy, owning much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is sense of frustration is deeply linked to technological change and trade. Economic dislocation is caused in large part by technological dislocation and to a much lesser extent by trade. This is a salient set of issues for a large part of the world. Democracies have done a poor job of addressing these concerns. Weak countervailing policies and a lack of recognition by elites of such issues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se problems.

Dominic Barton, a Canadian management consultant, has argued that companies should be taxed when they go through a major reorganization and downsize their workforce. That would allow companies to compensate for those people who find themselves out of work.

Citizens lack knowledge on basic issues. In the case of Brexit, extraordinarily misleading statements were seemingly accepted by many voters. In Hungary, where a referendum was held on the admission of under 2000

---

refugees, the argument that the refugees would inundate and overwhelm Hungarian culture was also seemingly accepted. This irresponsibility and the refusal of the political class to make rational decisions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education. This has led to a worrying combination of a distrust of leaders, expertise, and data, and a lack of interest in hard facts.

Based on the Economist's 2015 Democracy Index, South Korea ranked 22nd out of 167 countries in term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democracy. Along with rapid economic growth, rapid achievement of democracy is also regarded as a point of pride for South Korea. Though South Korea is institutionally stable,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and quality of democracy, many Korean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In Korean politics, the politics of compensation often prevail over the public interest. In order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leaders often try to compensate or reward their supporters, even if it is harmful to the general interest of the nation as a whole. This contributes to growing public dissatisfaction after elections.

Constitutional reform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Korea. The objective of the reforms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political leadership, maintain economic growth, achieve re-unification, and tackle inequality problems. However, because of inter-Korean tensions, Korea needs to maintain high defense spending, reaching 2.4% of its GDP in 2014. As a result, Korea spends the lowest amount on public social expenditure among all OECD countries. Korea cannot afford high spending on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aim to maintain a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which worsens inequality. If Korea is to undertake constitutional reform in a way that addresses all these interlinked issues, it must take the inter-Korean tensions into consideration.

'Will it play in Peoria?' used to be a widespread phrase heard in the United States. Peoria, a small city in Illinois in the middle of the U.S., used to be the ultimate test market for decades, whether it be a new policy or a new product. Along the way, we stopped thinking about Peoria and middle America. What we see at the moment is that politicians are going back to Peoria again.

For a long time, while republicans and democrats fought with each other in Washington, the people of Peoria suffered from unemployment and nobody was interested in their situation. Donald Trump came to these people and said "I will be your voice" and promised them that anything he does would be good for Peoria.

The important lesson this tells us is that everyone has contributed to this failure, whether they are on the left or on the right. We are the reasons why this product that has emerged. We must now seriously confront the question of what we are going to do with the people who have been left behind.

Session 6

## Cooperation in Educational Exchange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collabor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between Canada and Korea. Universities in Korea are at the hub of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Canada is now moving in that direction. Transforming the education system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Korea, because it wants to go from being a follower to being the first mover in the fiel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o be the first mover, Korea has to do away with rote-learning and memorization and focus 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One of the main challenges for Korean policy makers is to figure out how to make a speedy and successful transformation in this area. In this regard, Korea needs strong partnerships, particularly with advanced countries like Canada.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undergoing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The government of Korea has launched the so-called “free semester” initiative. During one semester, middle school students do not take exams and are given more time to explore their dreams. Moreover, there are talks of changing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so that students are not evaluated solely by entrance test scores but also through essays, interviews, and so on. Another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taking place in vocational and technical schools, with the aim of guaranteeing 100% employment after graduation.

A third transformation is happening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where Korea launched the so-called “World Class Initiative” to assist universities in inviting foreign faculty members in domestic campuses.

There is a lot of room for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and Canada have to open up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atter can be a good model for the former. In Canada, the college system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inequality and access issues. Canadian colleges not only accept regular students but also adults those who dropped out of high school. They also provide upgrading courses to train advanced skills for employment.

After secondary school in Canada, students have three options: the apprenticeship system, the traditional college system, and university. Canada also offers graduate certificates and diplomas, which take one year to complete. Canada has program advisory committees that update and develop new curriculum to reflect the skills required by employers so that students can adjust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Companies turn to colleges and institutes for innovation solutions through applied research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Colleges and institutes help companies innovate by focusing on improvements in technologies,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Applied research ensures that graduates have the research skills employers seek. Furthermore, Canada’s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rovides all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develop entrepreneurial skills, and increases ties with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Even though there are thousands of Koreans studying in Canada and thousands of Canadians teaching English in Korea,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s insufficient. Korea and Canada have to build

---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trust, common values and a shared vision. More institutional partnerships are needed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We should establish a Canada-Korea education and internship exchange program, which would engage employers on each side. Each year, a joint Canada-Korea committee would select one or two priority sectors or themes. At a yearly two-day event in either Korea or Canada, we would bring together institutions that are interested in these priority sectors. Institutions then select a partner institution from the other country, and submit joint partnerships proposals for funding. These partnerships will fund the travels of students to go to the other country for an internship. These internships could be preceded by a month-long orientation or short-term studies. Small-scale initiatives of this sort have been done on a one-off basis, but with government funding, we could make this a much more systematic and organized two-way program.

There are four steps to narrow the perception gap that we currently hav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encounter something new, to open one's mind, to understand and tolerate them, and lastly to accept them.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we must increase our efforts to offer courses in Canadian and Korean studies in universities, publish books about both countries, and promote student exchanges.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are studying in Canada and vice versa. There are also Canadian learning centers that offer courses in Korea and the Canada World Youth Program (CWY), which implements youth-focused programs. Both countries should develop bilateral student visit programs for younger students.

### 3. 참석자 명단

### List of Participants

#### KOREAN PARTICIPANTS

<b>AHN Byung-joon</b>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former Visiting Professor at the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b>AHN Doehee</b>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b>AHN Dukgeun</b>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b>CHO Hae-hyeong</b>	Chairman & CEO, Nara Holdings Corp.
<b>CHO Hee-yong</b>	Director,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former Ambassador to Canada
<b>CHUN Jeyeon</b>	Executive Director,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HONG Ki-hyung</b>	Former President, Daejin University and Jungwon University
<b>JUNG Hye-won</b>	Second Secretary,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JUNG Ku-Hyun</b>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b>KANG Sue-yon</b>	Director for North American Division II, MOFA
<b>KIL Jeong-Woo</b>	Visiting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b>KIM Chan-Woo</b>	Ambassador for Arct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me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enya
<b>KIM Dalchoong</b>	Professor Emeritus,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ormer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b>KIM DoHoon</b>	Professor, Sogang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b>KIM Hae-jung</b>	2nd Secretary at North American Division II, MOFA
<b>KIM Hang-kyung</b>	Chair-professor, Kangnam University; former Vice-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b>KIM Hyoung-zhin</b>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KIM Minju</b>	Marketing Assistant,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KIM Myung-ja</b>	President,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mer Minister of Environment;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b>KIM Sung-han</b>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b>KIM Yongjune</b>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b>LEE Hong-Koo</b>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
<b>LEE Jae-Seung</b>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b>LEE Jeong-Dong</b>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LEE Jong-Tae</b>	Professor, Korea University
<b>LEE Ju-Ho</b>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b>LEE Kyung Hoon</b>	Former Chairman, Daewoo Corporation
<b>LEE Seung-Hoon</b>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b>LEE Seung-Ryul</b>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b>LEE Yeonho</b>	Professor, Yonsei University
<b>PARK Ihn-hwi</b>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Ewha Womans University
<b>PARK In Kook</b>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b>PARK Jin</b>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b>PARK Joon-woo</b>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former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b>SHIN Hyoung Chul</b>	Director, Division of Strategy and Cooperatio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b>SUH Duck-Yull</b>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b>YEO Seung-bae</b>	Director-General for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MOFA
<b>YIM Sung-Joon</b>	Senior Advisor,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former Ambassador to Canada
<b>YOON Young-kwan</b>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

## CANADIAN PARTICIPANTS

<b>Paul BRENNAN</b>	V.P.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lleges and Institutes Canada
<b>Bill BROWN</b>	Regional Vice-President, Asia,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Export Development Canada
<b>Joseph CARON</b>	Former Ambassador of Canada to China, Japan and India
<b>James COTTER</b>	Defence Attache, Embassy of Canada
<b>Barry DEVOLIN</b>	Professor, Sejong University; former Member of Parliament
<b>Len EDWARDS</b>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b>Matthew FRASER</b>	Deputy Director, Northeast Asia Division, Global Affairs Canada
<b>Steven GOODINSON</b>	Senior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Canada
<b>Fen HAMPSON</b>	Director of Global Security and Politics, CIGI
<b>Benoit HARDY-CHARTRAND</b>	Senior Research Associate, CIGI; Lecturer, University of Montreal
<b>Patrick HEBERT</b>	Political Counsellor, Embassy of Canada
<b>Glen HODGSON</b>	Senior Fellow, former Senior Vice-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Conference Board of Canada
<b>John IBBITSON</b>	Writer at Large, the Globe and Mail
<b>Young-Hae LEE</b>	President, Canada Korea Society, Ottawa; Board Member, University of Ottawa Brain & Mind Research Institute
<b>Peter MACKINNON</b>	President Emeritus, University of Saskatchewan; past (interim) president, Athabasca University
<b>James MAYNARD</b>	President and CEO, Wavefront

---

<b>Kent NASH</b>	Senior Vice-President, Asia Pacific & Japan, Solace
<b>Tom PADDON</b>	Chairman, Baffinland Iron Mines Limited
<b>Jennifer SPENCE</b>	PhD Candid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Carleton University
<b>Sarah TAYLOR</b>	Director General, North Asia & Oceania Bureau, Global Affairs Canada
<b>Stephen J. TOOPE</b>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b>Michael TURNER</b>	V.P. System Strategies, Wesley Clover International
<b>Eric WALSH</b>	Ambassador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b>Hyon Ju YI</b>	Trade Commissioner, the Embassy of Canada

## 4. 프로그램 Program

### THURSDAY, OCTOBER 27, 2016

5:30 - 6:00 pm	<b>Registration</b>
6:00 pm	<b>Opening Session</b> <b>Welcoming Remarks</b>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6:10 pm	<b>Introduction of Invited Guests and Keynote Speaker</b> YIM Sung-Joon, Korean Co-Chair
6:20 - 6:40 pm	<b>Keynote Speech and Q&amp;A</b> KIM Hyoung-zhin, Deputy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6:40 - 8:30 pm	<b>Dinner</b>

### FRIDAY, OCTOBER 28, 2016

8:30 am	<b>Registration</b>
9:00 - 9:15 am	<b>Opening of the Forum</b> YIM Sung-Joon, Korean Co-Chair Leonard J. Edwards, Canadian Co-chair
9:15 - 10:45 am	<b>Session On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 for East Asian Security</b>  <b>Session Chair:</b> PARK Jin, Executive President, Asia Future Institute;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b>Panel Members:</b> YOON Young-kwan,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Sung-ha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ormer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Joseph CARON, former Canadian Ambassador, China and Japan Benoit HARDY-CHARTRAND, Senior Research Associate, CIGI; Lecturer, University of Montreal
10:45 - 11:00 am	<b>Coffee Break</b>

---

11:00 - 12:30 pm	<p><b>Session Two: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Digital Transformation</b></p> <p><b>Session Chair:</b> Michael TURNER, V.P. System Strategies, Wesley Clover International</p> <p><b>Panel Members:</b> LEE Jeong-D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ngjune, Dean, Graduate School of China, SungKyunKwan University James MAYNARD, President and CEO, Wavefront Kent NASH, Senior Vice-President, Asia Pacific &amp; Japan, Solace</p>
12:30 - 2:00 pm	<p><b>Lunch</b></p> <p><b>Special Speech by</b> LEE Hong-Koo, Chairman,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former Prime Minister</p>
2:00 - 3:30 pm	<p><b>Session Three: Economic Paradigm Shift</b></p> <p><b>Session Chair:</b> JUNG Ku-Hyun, President,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p> <p><b>Panel Members:</b> KIM DoHoon, former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AHN Dukgeu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ssioner, Korea Trade Commission Glen HODGSON, Chief Economist, Conference Board of Canada Bill BROWN, Regional Vice-President, Asia,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Export Development Canada</p>
3:30 - 3:45 pm	<p><b>Coffee Break</b></p>

---

---

3:45 – 5:15 pm

**Session Four: Arctic Cooperation**

**Session Chair:**

Len EDWARDS, CIGI Distinguished Fellow, former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nel Members:**

KIM Chan-Woo, Ambassador for Arct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IN Hyoung Chul, Director,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Jennifer SPENCE, PhD candidate, Arctic governance, Carleton University

Tom PADDON, Chairman, Baffinland Iron Mines Limited

6:00 – 8:00 pm

**Dinner hosted by**

Ambassador Eric WALSH (Canadian Embassy)

**Special Speech by**

Dr. Fen HAMPSON, Director of the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Program, CIGI

**SATURDAY, OCTOBER 29, 2016**

9:00 – 10:30 am

**Session Five: Challenges to Democratic Governance**

**Session Chair:**

PARK Ihn-hwi,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Panel Members:**

KIL Jeong-Woo, former Member, The National Assembly

LEE Yeonh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tephen J. TOOPE, Director,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ersity of Toronto

John IBBITSON, Writer at Large, The Globe and Mail

10:30 – 10:45 am

**Coffee Break**

---

10:45 - 12:15 pm

**Session Six: Cooperation in Educational Exchanges**

**Session Chair:**

Peter MACKINNON, President Emeritus, University of Saskatchewan;  
past (interim) president, Athabasca University

**Panel Members:**

LEE Ju-Ho,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former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LEE Seung-Ryul, Preside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ersity

Paul BRENNAN, V.P.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Colleges and Institutes Canada

Young-Hae LEE, President, Canada-Korea Society, Ottawa

**[Guest Participants]**

Barry DEVOLIN, Professor, Sejong University; former Member of Parliament

12:15 -12:30 pm

**Concluding Remarks**

12:30 - 2:00 pm

**Farewell Lunch**









---

**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우.0451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에스원빌딩, 순화동)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seoulforum@hotmail.com](mailto:seoulforum@hotmail.com)